14만4천 명 명단확인법

(에스겔 9:1~11)

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2.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14만 4천명 명단 확인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14만 4천명 명단 확인법'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을 자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4천 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4만4천 명이 기록된 명단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합격자 명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격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막연하거나 맹목적으로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그 명단에 있고 너는 그 명단에 없다는 식으로 임의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명단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단이 있다고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14만 4천명에 대한 오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구원 받을 자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4천명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만2천명을 곱하면 14만4천이 됩니다. 12에 12가 곱해지고 다시 1,000을 곱해서 14만4천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12는 열두 지파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상징이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상급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만4천은 이 숫자만큼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을 자의 무리가 한 사람도 더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완벽하게 채워지리라는 의미입니다. 에덴이 기쁨을 상징하는 장소였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선택과 완전함과 충만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명단의 이름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생각해보자면 구원받을 자들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있는 그대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마에 인친 사람의 숫자는 1억 명일지 10억 명일지 100억 명일지 우리로써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이 명단에 들어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또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그 명단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명단에 속한 자들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의 명단이 존재함을 드러내신 이유는 분명한 합격기준을 제시하심으로써 구원을 확인할 방법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14만 4천의 명단에 내가 있음을 오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수능시험에서 만점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시는 3년간의 학교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정시는 수능시험 성적만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간의 성적만으로도 서울 의대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게 교감선생님이 정시에 도전하라고 강권했다고 합니다. 3년간 진행 된 모의고사 성적을 평균을 내보면 서울 의대 커트라인보다 훨씬 웃도는 성적이 나오므로 정시로 지원하는 편이 보다 확실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의 예상대로 이 학생은 수능을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의대의 합격점이 409점이라면 이 학생은 늘 모

의고사에서 415점 이상을 받았던 셈입니다. 409점이 기준이라면 이미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균적으로 403점을 받았던 학생이라면 당연히 정시보다는 수시를 보도록 권고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입학에 합격점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면 구원의 명단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당장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윽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기준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확신의 강도가 아닌 정확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면 반드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대로 구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섯 천사는 살육의 무기를 들고 있고 다른 천사는 서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구원의 표를 그리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표란 히브리어로 타우(ת)입니다. 타우는 23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표에는 최종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타우는 오메가로서 최종적인 합격표시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기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를 그릴 때에는 숫자가 적은 쪽을 대상으로 합니다. 죽일 자가 아니라 살릴 자에게 표를 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구원의 표를 받을 자들이 멸망당할 자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숭배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명단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붙잡으려면 우상숭배라는 조건만으로는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우상숭배와 구원의 기준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라고 하

였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민들에게는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숭배 그 자체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인과로 얽혀있기에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영광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기 이전에 내게 좋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좋고 유익한 일은 달리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좋다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티끌만도 못하기에 비교선상에 오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비하면 부귀영화는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야 말로 유익이 안 되고 위험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고 간구하고 애원해야 할 일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실 때에 내게도 가장 큰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명단에 내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느냐에 달렸습니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웃과 민족에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고, 그 영광을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표를 얻는 자들입니다. 비록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구원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란 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입니다. 그 영화로운 빛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관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1등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빛을 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제 말씀에서 터널 비전, 터널 시야이라는 말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깜깜하지만 무대 위의 배우에게만 조명이 비춰지는 모습을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

습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산 아래에 있던 모든 대상들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미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으며 이루고 싶은 일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의 특징이고 구원의 표를 이마에 받게 되는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기에 지속적인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십자가 생활화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돈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들어온 상태를 죽이기 위해 십자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곧 내 마음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조명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만 주님의 부활과 승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의 명단에 오른 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외의 것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욕구하여 행동하는 모든 일이 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선민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알았던 소수만이 이마에 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

는 자들만이 구원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임의로 늘려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을 14만 4천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알려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에 담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것과 재정문제들을 마음에서 바라보면서 반응하고 해결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초신자라고 해서 마냥 부드럽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될 것과 그로인해 나타나게 될 일을 분명히 알려줘야만 합니다.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좋으심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좋으심이고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쁨과 만족이 없을 정도로 좋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에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나를 통해 이루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교회 재정을 바라보고 큰 예배당 짓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 전체가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소수만이 표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대상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루터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죽는 것은 곧 마음에서 더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돈과 건강과 가족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음에서 돈과 건강과 가족만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든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상숭배도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조건 중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도 십자가 생활화의 예표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놋 제단에 서 있다가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놋 제단은 곧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일 년 내내 하루에 두 번씩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법을 알려주시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던 상번제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설령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만 우리 마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놋 제단에 서 있다가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곧 번제단에 마음을 보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밝히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번제가 드려지는 번제단에 와서 어린양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제단을 거부했기에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을 밝히는 태양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돈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돈이 태양빛이 됩니다. 돈을 중심으로 비춰지는 모습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나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바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좋은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100억을 거저 얻게 되고,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면 기절할 정도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설령 노숙자로 살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다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이었고, 33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심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일을 마주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내가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명단에 포함 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웃들을 안타까워하며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